

석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모든 전선이 활력있게 전진하게 하자

불굴의 정신력으로 총공격전을 벌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제군을 주체혁명적 핵심부대, 나라의 말마름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쫓아주어야 합니다.》

석탄생산은 결정적으로 농업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혁신지구관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사력경쟁, 간고분투

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줄기찬 생산돌격전을 벌이고있다.

부담지는 난관을 뚫고 수심계의 굴진, 제탄단위들이 년간계획을 일관성있게 완수하여 생산적앙양의 불꽃을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다.

혁신의 기상 세차게 나래치는 단전에서 우리는 미더운 지하전초병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벽돌불굴의 신념과 의지에 대하여 전하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탄부들의 시선은 일제히 중대장 강연철동무에게로 쏠려있다.

그때 막장을 울린 중대장의 힘찬 제침!

《동무들, 조국이 지쳐본다. 나를 따라 앞으로!》

석수를 밟아 탄부들은 돌진했다. 쏟아지는 석수와 흐르는 땅에 온몸은 흠뻑 젖고 집집 힘은 진해져도 더더욱 용솨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석탄생산으로 땅을 걸사유할 혁명의 신념이었다.

세탄1 중대원들은 짧은 시간에 막장을 부르고 탄수공작전

을 벌여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어서고 있었다. 판내에 있었다. 판내에 있었다. 판내에 있었다.

막장의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 온 판전에 당쟁적사관철의 새한 불길이 떠오르는 속에 혁명적앙양을 김철정년동지대, 혁신지구관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이끌고 있었다.

혁명의 불길은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다. 온 판전에 당쟁적사관철의 새한 불길이 떠오르는 속에 혁명적앙양을 김철정년동지대, 혁신지구관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이끌고 있었다.

회안 청년 탄광 1갱 탄부들

회안청년탄광 1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5개년계획목표수행 중 산동적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하루 석탄생산량을 총진보로 1.2 배로 끌어올렸다. 걸과 2개의 제탄중대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는데 1년 석탄생산량을 일당씩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가 열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대장장이 되고 배관공이 되라!》

이들이 내세운 하루전투목표는 총진보의 1.2 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걸진소대원들은 고도가 따르지는 전두에 펼쳐나갔다. 제탄중대원들도 연중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

진두부대가 더욱 고조되던 어느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정사각도가 17° 되는 사정에서 뜻하지 않게 판지가 치켜서며 불베판과 공기배관이 뚫어지고 전역에까지 걸탄단원이었다.

경을 복수하던 당대는 심히 고조되고 있었다. 사시각도 무성하게 자오르는 불은 당장 경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이들은 5개년계획목표수행 중 산동적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 시각도 대고조전투장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깨는 석탄을 기다리고있다. 닷새가 아니라 하루동안에 무조건 경을 복수한다.》

김정공, 제탄공들은 지체없이 경복구를 위한 걸사전에 진입하였다.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당의 전투적호소에 걸사의 신념으로 화답하며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려는 신념과 의지가 격박되고 있었다. 그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한치한치 사정올바름이 열리고 배관공들과 제탄공들이 빠른 속도로 전진하였다.

결과 경복구전투는 단 하루동안에 끝나고 생산적앙양의 승전은 더욱 높여져 있었다.

중산동적운동의 하루하루를 거둬와 위훈으로 맺어지는 혁신의 기수들이 어찌 이불베판을 뜻하지 않게 울리굴레탄광장이 불락되었을 때 막장보수와 제탄작업을 동시에 내밀어 석탄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한 청년중대원들, 알기름 걸진탄광에 걸근시키기 위한 체제조립전투를 한 주일이 아니라 단 하루동안에 진행한 실비중대원들...

년간계획완수의 남을 일당하기 위해 막장을 뜨지 않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정신으로 해나가고있는 걸진공업일군의 모습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경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중산동적운동의 불길속에서 더 높은 석탄생산량으로 출제전투를 만나게 될수있을 것이다.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이제 남은 구간은 불과 몇m!》

발파설정이 끝이 났었다.

얼마후 불-공-분출한 발파소리가 지진을 흔들었다.

이때였다. 경의 중간부문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탄부들이 우치지 부러져나갔다. 현이 어차도 10m의 구간이 붕괴되어 있었다.

폭도처럼 쏟아져내린 비벽량은 수심급속으로, 그 치어에만도 현상이 3달은 걸려야 했다.

탄부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하듯 알길을 가로막은 난관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용호하거나 물러선 데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황포탄 자연이 경의 동발을 부러뜨릴수는 있었어도 탄부

우리의 대담이 불굴의 신념이 걸진

회안청년탄광 1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5개년계획목표수행 중 산동적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하루 석탄생산량을 총진보로 1.2 배로 끌어올렸다. 걸과 2개의 제탄중대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는데 1년 석탄생산량을 일당씩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가 열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대장장이 되고 배관공이 되라!》

이들이 내세운 하루전투목표는 총진보의 1.2 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걸진소대원들은 고도가 따르지는 전두에 펼쳐나갔다. 제탄중대원들도 연중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

진두부대가 더욱 고조되던 어느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정사각도가 17° 되는 사정에서 뜻하지 않게 판지가 치켜서며 불베판과 공기배관이 뚫어지고 전역에까지 걸탄단원이었다.

경을 복수하던 당대는 심히 고조되고 있었다. 사시각도 무성하게 자오르는 불은 당장 경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이들은 5개년계획목표수행 중 산동적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제 남은 구간은 불과 몇m!》

발파설정이 끝이 났었다.

얼마후 불-공-분출한 발파소리가 지진을 흔들었다.

이때였다. 경의 중간부문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탄부들이 우치지 부러져나갔다. 현이 어차도 10m의 구간이 붕괴되어 있었다.

폭도처럼 쏟아져내린 비벽량은 수심급속으로, 그 치어에만도 현상이 3달은 걸려야 했다.

탄부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하듯 알길을 가로막은 난관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용호하거나 물러선 데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황포탄 자연이 경의 동발을 부러뜨릴수는 있었어도 탄부

《이제 남은 구간은 불과 몇m!》

발파설정이 끝이 났었다.

얼마후 불-공-분출한 발파소리가 지진을 흔들었다.

이때였다. 경의 중간부문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탄부들이 우치지 부러져나갔다. 현이 어차도 10m의 구간이 붕괴되어 있었다.

폭도처럼 쏟아져내린 비벽량은 수심급속으로, 그 치어에만도 현상이 3달은 걸려야 했다.

탄부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하듯 알길을 가로막은 난관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용호하거나 물러선 데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황포탄 자연이 경의 동발을 부러뜨릴수는 있었어도 탄부

신념의 강자들은

지난 어느날 형봉탄광 출발경 고속도굴진소대원들은 년간계획수행의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이제 남은 구간은 불과 몇m!

발파설정이 끝이 났었다.

얼마후 불-공-분출한 발파소리가 지진을 흔들었다.

이때였다. 경의 중간부문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탄부들이 우치지 부러져나갔다. 현이 어차도 10m의 구간이 붕괴되어 있었다.

폭도처럼 쏟아져내린 비벽량은 수심급속으로, 그 치어에만도 현상이 3달은 걸려야 했다.

탄부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하듯 알길을 가로막은 난관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용호하거나 물러선 데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황포탄 자연이 경의 동발을 부러뜨릴수는 있었어도 탄부

불가능을 모른다

불의 불같은 의지만은 꺾을수 없었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굴진이 아니라 당쟁적판전에 운명을 걸 걸사전이다. 걸사판전은 곧 우리의 신념이다.)

소대원들의 심정은 이렇게 쫓고 있었다.

축성이 전진력을 열기 위한 각전이 벌어졌다.

경도를 딱 메운 비벽들을 헤쳐 마치 또 한차례...

출발경 고속도굴진소대원들은 비벽지를 불과 8시간만에 걸수하고 걸사전투를 벌여 판내에 년간 계획수행을 완수하였다.

이들뿐이 아니었다.

혁신지구관광련합기업소 5개년 중대원들이 맹렬한 제탄전투를 벌이고 있던 지난 어느날, 갑자기 막장에 석수가 퍼졌다. 물량은 간단치 않았다.

경쟁속에 전진

얼마전 서양청년탄광 벨트벨트굴진소대에서는 탄광법굴진경기가 벌어졌다. 경합되고 소문난 고속도굴진소대, 청년중대원들이 승부를 다투었다. 각 단위의 굴진경쟁은 탄광의 명예를 떨치기 위하여 높은 기술기능과 무비의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제탄탄광 8개 고속도굴진소대의 남양탄광 강호영청년중대대의 굴진경쟁은 한두일이나 남먼저 전투과제를 끝내고 경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다른 단위들에서도 종전의 실적을 훨씬 뛰어넘었다.

경기를 통하여 거둔 성과는 참으로 컸다.

새 기록창조투쟁으로 매 집단을 더욱 단합된 것은 물론 탄광

경쟁속에 전진

얼마전 서양청년탄광 벨트벨트굴진소대에서는 탄광법굴진경기가 벌어졌다. 경합되고 소문난 고속도굴진소대, 청년중대원들이 승부를 다투었다. 각 단위의 굴진경쟁은 탄광의 명예를 떨치기 위하여 높은 기술기능과 무비의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제탄탄광 8개 고속도굴진소대의 남양탄광 강호영청년중대대의 굴진경쟁은 한두일이나 남먼저 전투과제를 끝내고 경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다른 단위들에서도 종전의 실적을 훨씬 뛰어넘었다.

경기를 통하여 거둔 성과는 참으로 컸다.

새 기록창조투쟁으로 매 집단을 더욱 단합된 것은 물론 탄광

개천탄광에서

동발이 들어간것만큼 석탄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석탄생산에서 동발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탄광에서 동발을 새로 마련하는것과 함께 석수리용량을 높이는 신 설비를 연구하고 있다.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 개천탄광에서는 동발석수리용량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성과를 보고있다.

물론 다른 탄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있지만 개천탄광의 동발석수리용량은 훨씬 높다.

형봉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이 《다음고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불고 고대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집단적헌신을 일으키도록 독기잡이를 잘하고있다.

출발경의 사업을 실례로 돌아보자.

이 경의 운반거리는 매우 길다. 막장에서부터 제탄장까지 탄부들이 왕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탄부들이 제탄에서 석탄생산실적을 올리려면 탄차리용량을 최대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어느날 경장은 고대당 생산실적이 더 오르지 못하고있는 현인을 분석해 단위별경쟁이 심화되는

개천탄광에서

동발이 들어간것만큼 석탄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석탄생산에서 동발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탄광에서 동발을 새로 마련하는것과 함께 석수리용량을 높이는 신 설비를 연구하고 있다.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 개천탄광에서는 동발석수리용량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성과를 보고있다.

물론 다른 탄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있지만 개천탄광의 동발석수리용량은 훨씬 높다.

형봉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이 《다음고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불고 고대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집단적헌신을 일으키도록 독기잡이를 잘하고있다.

출발경의 사업을 실례로 돌아보자.

이 경의 운반거리는 매우 길다. 막장에서부터 제탄장까지 탄부들이 왕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탄부들이 제탄에서 석탄생산실적을 올리려면 탄차리용량을 최대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어느날 경장은 고대당 생산실적이 더 오르지 못하고있는 현인을 분석해 단위별경쟁이 심화되는

개천탄광에서

동발이 들어간것만큼 석탄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석탄생산에서 동발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탄광에서 동발을 새로 마련하는것과 함께 석수리용량을 높이는 신 설비를 연구하고 있다.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 개천탄광에서는 동발석수리용량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성과를 보고있다.

물론 다른 탄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있지만 개천탄광의 동발석수리용량은 훨씬 높다.

형봉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이 《다음고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불고 고대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집단적헌신을 일으키도록 독기잡이를 잘하고있다.

출발경의 사업을 실례로 돌아보자.

이 경의 운반거리는 매우 길다. 막장에서부터 제탄장까지 탄부들이 왕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탄부들이 제탄에서 석탄생산실적을 올리려면 탄차리용량을 최대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어느날 경장은 고대당 생산실적이 더 오르지 못하고있는 현인을 분석해 단위별경쟁이 심화되는

개천탄광에서

동발이 들어간것만큼 석탄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석탄생산에서 동발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탄광에서 동발을 새로 마련하는것과 함께 석수리용량을 높이는 신 설비를 연구하고 있다.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 개천탄광에서는 동발석수리용량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성과를 보고있다.

물론 다른 탄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있지만 개천탄광의 동발석수리용량은 훨씬 높다.

형봉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이 《다음고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불고 고대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집단적헌신을 일으키도록 독기잡이를 잘하고있다.

출발경의 사업을 실례로 돌아보자.

이 경의 운반거리는 매우 길다. 막장에서부터 제탄장까지 탄부들이 왕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탄부들이 제탄에서 석탄생산실적을 올리려면 탄차리용량을 최대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어느날 경장은 고대당 생산실적이 더 오르지 못하고있는 현인을 분석해 단위별경쟁이 심화되는

개천탄광에서

동발이 들어간것만큼 석탄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석탄생산에서 동발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탄광에서 동발을 새로 마련하는것과 함께 석수리용량을 높이는 신 설비를 연구하고 있다.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 개천탄광에서는 동발석수리용량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성과를 보고있다.

물론 다른 탄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있지만 개천탄광의 동발석수리용량은 훨씬 높다.

형봉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이 《다음고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불고 고대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집단적헌신을 일으키도록 독기잡이를 잘하고있다.

출발경의 사업을 실례로 돌아보자.

이 경의 운반거리는 매우 길다. 막장에서부터 제탄장까지 탄부들이 왕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탄부들이 제탄에서 석탄생산실적을 올리려면 탄차리용량을 최대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어느날 경장은 고대당 생산실적이 더 오르지 못하고있는 현인을 분석해 단위별경쟁이 심화되는

개천탄광에서

동발이 들어간것만큼 석탄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석탄생산에서 동발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탄광에서 동발을 새로 마련하는것과 함께 석수리용량을 높이는 신 설비를 연구하고 있다.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 개천탄광에서는 동발석수리용량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성과를 보고있다.

물론 다른 탄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있지만 개천탄광의 동발석수리용량은 훨씬 높다.

형봉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이 《다음고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불고 고대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집단적헌신을 일으키도록 독기잡이를 잘하고있다.

출발경의 사업을 실례로 돌아보자.

이 경의 운반거리는 매우 길다. 막장에서부터 제탄장까지 탄부들이 왕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탄부들이 제탄에서 석탄생산실적을 올리려면 탄차리용량을 최대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어느날 경장은 고대당 생산실적이 더 오르지 못하고있는 현인을 분석해 단위별경쟁이 심화되는

개천탄광에서

동발이 들어간것만큼 석탄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석탄생산에서 동발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탄광에서 동발을 새로 마련하는것과 함께 석수리용량을 높이는 신 설비를 연구하고 있다.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 개천탄광에서는 동발석수리용량을 끌어올려 적지 않은 성과를 보고있다.

물론 다른 탄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있지만 개천탄광의 동발석수리용량은 훨씬 높다.

형봉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이 《다음고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불고 고대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집단적헌신을 일으키도록 독기잡이를 잘하고있다.

출발경의 사업을 실례로 돌아보자.

이 경의 운반거리는 매우 길다. 막장에서부터 제탄장까지 탄부들이 왕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탄부들이 제탄에서 석탄생산실적을 올리려면 탄차리용량을 최대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어느날 경장은 고대당 생산실적이 더 오르지 못하고있는 현인을 분석해 단위별경쟁이 심화되는

자기 힘을 믿으라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축산물생산활성화의 그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년보다 많은 양의 고기와 알을 생산하였다. 이 단위의 자랑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당조직에서는 그의 걸음을 적극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펼쳐나가는 기간에 새 축산기지를 열었다.

건물을 잘 꾸려놓았다고 하여 축산이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축산사업에 있어 건물이 축산기지를 열었다. 일부 사당들은 손해를 놓고 주저하기도 하였다. 이때 관리위원장은 어떻게 첫발을 떼부렀는가.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중을 목표수행에도 불려내었다.

새 축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더 초급일군들을 이끌고 소문난 단위들을 찾아가 경험도 배

자기 힘을 믿으라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축산물생산활성화의 그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년보다 많은 양의 고기와 알을 생산하였다. 이 단위의 자랑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당조직에서는 그의 걸음을 적극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펼쳐나가는 기간에 새 축산기지를 열었다.

건물을 잘 꾸려놓았다고 하여 축산이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축산사업에 있어 건물이 축산기지를 열었다. 일부 사당들은 손해를 놓고 주저하기도 하였다. 이때 관리위원장은 어떻게 첫발을 떼부렀는가.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중을 목표수행에도 불려내었다.

새 축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더 초급일군들을 이끌고 소문난 단위들을 찾아가 경험도 배

자기 힘을 믿으라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축산물생산활성화의 그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년보다 많은 양의 고기와 알을 생산하였다. 이 단위의 자랑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당조직에서는 그의 걸음을 적극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펼쳐나가는 기간에 새 축산기지를 열었다.

건물을 잘 꾸려놓았다고 하여 축산이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축산사업에 있어 건물이 축산기지를 열었다. 일부 사당들은 손해를 놓고 주저하기도 하였다. 이때 관리위원장은 어떻게 첫발을 떼부렀는가.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중을 목표수행에도 불려내었다.

새 축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더 초급일군들을 이끌고 소문난 단위들을 찾아가 경험도 배

자기 힘을 믿으라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축산물생산활성화의 그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년보다 많은 양의 고기와 알을 생산하였다. 이 단위의 자랑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당조직에서는 그의 걸음을 적극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펼쳐나가는 기간에 새 축산기지를 열었다.

건물을 잘 꾸려놓았다고 하여 축산이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축산사업에 있어 건물이 축산기지를 열었다. 일부 사당들은 손해를 놓고 주저하기도 하였다. 이때 관리위원장은 어떻게 첫발을 떼부렀는가.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중을 목표수행에도 불려내었다.

새 축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더 초급일군들을 이끌고 소문난 단위들을 찾아가 경험도 배

자기 힘을 믿으라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축산물생산활성화의 그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년보다 많은 양의 고기와 알을 생산하였다. 이 단위의 자랑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당조직에서는 그의 걸음을 적극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펼쳐나가는 기간에 새 축산기지를 열었다.

건물을 잘 꾸려놓았다고 하여 축산이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축산사업에 있어 건물이 축산기지를 열었다. 일부 사당들은 손해를 놓고 주저하기도 하였다. 이때 관리위원장은 어떻게 첫발을 떼부렀는가.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중을 목표수행에도 불려내었다.

새 축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더 초급일군들을 이끌고 소문난 단위들을 찾아가 경험도 배

자기 힘을 믿으라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축산물생산활성화의 그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년보다 많은 양의 고기와 알을 생산하였다. 이 단위의 자랑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당조직에서는 그의 걸음을 적극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펼쳐나가는 기간에 새 축산기지를 열었다.

건물을 잘 꾸려놓았다고 하여 축산이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축산사업에 있어 건물이 축산기지를 열었다. 일부 사당들은 손해를 놓고 주저하기도 하였다. 이때 관리위원장은 어떻게 첫발을 떼부렀는가.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중을 목표수행에도 불려내었다.

새 축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더 초급일군들을 이끌고 소문난 단위들을 찾아가 경험도 배

자기 힘을 믿으라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평성시 봉화남새전문협동농장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축산물생산활성화의 그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년보다 많은 양의 고기와 알을 생산하였다. 이 단위의 자랑한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당조직에서는 그의 걸음을 적극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 주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펼쳐나가는 기간에 새 축산기지를 열었다.

건물을 잘 꾸려놓았다고 하여 축산이 저절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축산사업에 있어 건물이 축산기지를 열었다. 일부 사당들은 손해를 놓고 주저하기도 하였다. 이때 관리위원장은 어떻게 첫발을 떼부렀는가.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중을 목표수행에도 불려내었다.

새 축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더 초급일군들을 이끌고 소문난 단위들을 찾아가 경험도 배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유리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

현지 보도

굴진은 넘겨말카 룡산탄광 5갱 굴진소대에서

회안청년탄광 1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5개년계획목표수행 중 산동적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하루 석탄생산량을 총진보로 1.2 배로 끌어올렸다. 걸과 2개의 제탄중대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는데 1년 석탄생산량을 일당씩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가 열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대장장이 되고 배관공이 되라!》

이들이 내세운 하루전투목표는 총진보의 1.2 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걸진소대원들은 고도가 따르지는 전두에 펼쳐나갔다. 제탄중대원들도 연중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

진두부대가 더욱 고조되던 어느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정사각도가 17° 되는 사정에서 뜻하지 않게 판지가 치켜서며 불베판과 공기배관이 뚫어지고 전역에까지 걸탄단원이었다.

경을 복수하던 당대는 심히 고조되고 있었다. 사시각도 무성하게 자오르는 불은 당장 경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이들은 5개년계획목표수행 중 산동적운동을 벌이고 있다.

굴진은 넘겨말카 룡산탄광 5갱 굴진소대에서

회안청년탄광 1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5개년계획목표수행 중 산동적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하루 석탄생산량을 총진보로 1.2 배로 끌어올렸다. 걸과 2개의 제탄중대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는데 1년 석탄생산량을 일당씩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가 열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대장장이 되고 배관공이 되라!》

이들이 내세운 하루전투목표는 총진보의 1.2 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걸진소대원들은 고도가 따르지는 전두에 펼쳐나갔다. 제탄중대원들도 연중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

진두부대가 더욱 고조되던 어느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정사각도가 17° 되는 사정에서 뜻하지 않게 판지가 치켜서며 불베판과 공기배관이 뚫어지고 전역에까지 걸탄단원이었다.

경을 복수하던 당대는 심히 고조되고 있었다. 사시각도 무성하게 자오르는 불은 당장 경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이들은 5개년계획목표수행 중 산동적운동을 벌이고 있다.

굴진은 넘겨말카 룡산탄광 5갱 굴진소대에서

회안청년탄광 1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5개년계획목표수행 중 산동적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하루 석탄생산량을 총진보로 1.2 배로 끌어올렸다. 걸과 2개의 제탄중대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는데 1년 석탄생산량을 일당씩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가 열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대장장이 되고 배관공이 되라!》

이들이 내세운 하루전투목표는 총진보의 1.2 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걸진소대원들은 고도가 따르지는 전두에 펼쳐나갔다. 제탄중대원들도 연중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

진두부대가 더욱 고조되던 어느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정사각도가 17° 되는 사정에서 뜻하지 않게 판지가 치켜서며 불베판과 공기배관이 뚫어지고 전역에까지 걸탄단원이었다.

경을 복수하던 당대는 심히 고조되고 있었다. 사시각도 무성하게 자오르는 불은 당장 경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이들은 5개년계획목표수행 중 산동적운동을 벌이고 있다.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제 힘으로 축산을 활성화해나가는 혁신적 일본새

과학기술사업에서 중시한 문제

평원군 일군들의

평원군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군의 농업발전이 적극 거역한 농사작업과 물에빠르, 남새작물에 좋은 복합영양액... 이뿐만이, 파수지를 이용한 광택질, 석탄연소설계, 방수, 풀유기 등 모든것이 다 군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자체로 만들어낸것이다. 과학기술위원회의 일군들 한사람한사람이 군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가는데서 큰 몫을 감당하고있다.

하지만 몇년전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사업에서 별로 뚜렷한 성과가 없던 평원군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글오글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단위위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물을 거둘수 없다는 관념과 입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서 선진적인 힘을 보이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 나가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1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읽는중이던 평원군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난 시기 군의 발전을 과학기술로 힘써 떠밀고나가지 못한 지역개발때문이었다.

군과학기술위원회 사업을 높고보아도 잘 알수 있었다.

군의 발전을 과학기술로 추동해나가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여야 할 과학기술위원회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군의 일군들도 과학기술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읽는중이던 평원군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난 시기 군의 발전을 과학기술로 힘써 떠밀고나가지 못한 지역개발때문이었다.

군과학기술위원회 사업을 높고보아도 잘 알수 있었다.

군의 발전을 과학기술로 추동해나가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여야 할 과학기술위원회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군의 일군들도 과학기술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하여 군과학기술위원회의 일군들에게 걸린 문제를 풀때 대한 과업을 주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과가 날 때까지 연구사업을 함께 하는 심정으로 밀어주는 좋은 기풍을 세워나가고있다.

군의 농업발전이 적극 거역한 농사작업과 물에빠르, 남새작물에 좋은 복합영양액을 제작하던 과정은 높고도 잘 알수 있었다.

군의 일군들은 과학기술위원회의 일군들에게 걸린 문제를 풀때 대한 과업을 주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과가 날 때까지 연구사업을 함께 하는 심정으로 밀어주는 좋은 기풍을 세워나가고있다.

군의 농업발전이 적극 거역한 농사작업과 물에빠르, 남새작물에 좋은 복합영양액을 제작하던 과정은 높고도 잘 알수 있었다.

군의 일군들도 과학기술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읽는중이던 평원군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난 시기 군의 발전을 과학기술로 힘써 떠밀고나가지 못한 지역개발때문이었다.

군과학기술위원회 사업을 높고보아도 잘 알수 있었다.

군의 발전을 과학기술로 추동해나가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여야 할 과학기술위원회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군의 일군들도 과학기술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군민문제만 보아도 몇년전부터 군과학기술위원회의사업들을 면담하게 되어주자고 말은 했지만 실지로는 크게 관심하는 일군이 없었다.

영광의 땅을 빛내여가는 공지와 보람

구장군 룡철공예전문협동농장을 찾아서

룡철공예전문협동농장은 군적으로 일 잘하는 단위로 소문났다.

공예작품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편주 올해의 첫해 농사에서부터 장문을 붙였다. 축산과 양어, 온실남새생산은 물론 무리기사업도 잘하여 어느 모로 보나 손색없는 농장으로 손꼽히고있다.

자랑많은 농장의 오늘에 대해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한목소리로 말하고있다.

《우리 농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다르신 영광의 땅입니다.》

이 말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영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자기 고장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함께 영광의 땅을 누려나가기 위한 열정과 애정을 엿볼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영적을 빛내이고 유능을 철저히 발휘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에 뜻과 비전을 현실로 꽃피우라 한다.》

얼마전 이곳 농장을 방문한 우리는 소재지 한가운데 위치한 모신 어머니수령님의 현지도 포식비밀에서 삼가 웃음을 여미었다.

주제 47(1958)년 11월 마가운의 현내에도 마다하지 않고 모신 어머니 농장을 찾았을 때 이 농장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지켜보게 되자 정면 한 농장원들과 하룻밤이 담담하게 나누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다.

《예전으로 자기 고장을 꾸려 영광의 땅의 주인이라는 자

가는 일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했을뿐입니다.》

우리의 만난 서남철공예전문협동농장의 목소리는 뜨거움에 젖어 있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유능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농장원 모두가 펼쳐나 농장을 건설시켜온 못 잊을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축산작업반을 70일전후로 정하고 총칭의 분조단위로 나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주를 벌려 2층짜리 종합축사를 면담하게 건설하던 이야기, 양어물을 개간하여 도적인 보어주기 사업을 진행한 자랑과 1천여㎡의 대양은실과 비섯 생산기지를 덩실하게 일떠세우고 사철 푸른 남새와 맞붙은 비섯으로 농장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한 기쁨...

하나하나의 이야기에는 수령의 유능과 열정, 당정책을 어렵게 면한 실정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긍지와 보람이 어려있었다.

우리는 리명옥관리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청년분조를 찾았다. 산뜻한 학습공간이며 장교실 그리고 자체의 온실과 집집순우며, 무척이 쌓여있는 거대한 거름부지 등 분조를 이더 할것없이 자랑이 더할 수 없는 영광의 땅을 꽃피워가려는 이곳 청년분조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건진 일본새가 그대로 비쳐있었다.

우렁이유기농법을 비롯한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과학농사에서도 농장의 일선에서 내뿜고있는 분조의 자랑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는지.

영광의 땅의 주인이라는 자

용 소중히 안고서는 청년분조원들이기에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 공예작품제작이었는데, 드는 해, 이는 정말 포전에서 맞고보내며 이악하게 노력하여 앞지러를 당당히 차지하였다.

이런 자랑거리는 공예작품제작에서 군적으로 손가락에 꼽힌다는 제6작업반을 비롯하여 농장의 그 어느 작업반에 들려도 들을수 있었다.

이런 자랑을 위해 남기고 우리는 농장의 앞선이며 산중턱에 꾸러놓은 나무모밭도 돌아보았다.

헤마타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산림복구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었다. 이곳 조림분조원들의 이야기에선 이런 심리다. 푸른 숲이 더욱 우거질 농장의 패일이 비껴있어 우리의 마음을 후럽게 해주었다.

어찌 그뿐이랴. 농장에서는 자체로 잘도 생산하여 산모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으며 목화도 심어 재실함을 펴는 신방식부는 물론 현상자재에 새이불을 보강해주고있으니 들으면 들을수록 농장의 자랑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전반의 자랑 없이는 룡철공예전문협동농장,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영광의 땅을 사회주의신선마을로 키워가려는 뜨거운 향토애, 불같은 열정을 가슴후루룩 느낀수 있었다.

이런 참된 주인들이 있어 농장의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더욱 야무지게 키워나가는 확신이 위로를 미치고 떠나는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본사기자



새 교육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교수협의회를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한덕수평양공업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정성일

날알편취기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섰다

평양 피산 공장에서

평양피산공장에 현대적인 날알편취기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섰다.

어디까지 영양가 높은 곡식날알의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공정을 새로 꾸려잡았으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과 집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청정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많이 인제주시며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5월 공장에 날알편취기생산공정을 새로 꾸려잡은 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친히 날알편취기전문기술도 보내주시었다.

평양피산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굶은 남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터에 뜨거운 열도의 자욱을 새긴 정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자기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투

쟁에 한걸음이 멀어졌다.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자신들의 날알편취기 관련원리들을 연구하는 한편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해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현대화과과를 조직하고 대성원들에게 과제분담을 명백히 주어 그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업의 힘, 현상이용장비들의 자주 조직하여 대공의 집제적 역할을 적극 발휘시켰다.

날알편취기생산과 관련한 경험이 부족하였지만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자기 힘을 믿고 지혜를 합쳐가며 세갖을 탐구하고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기술과 과학의 융합시행소의 선진들은 날알편취기 선지리공정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고리인 날알가구의 립도보장을 힘써 넣고 날알분쇄기를 우리 식으로 설계제작하기 위한 사업도 내밀었다.

공무직자 노동자들은 여러차례의 실험과 연구에 신심을 잃지 않고 날알정선기제작에서

걸린 문제들을 끝내 해결함으로써 실수없이 높은 성과를 우리 식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성과가 오물수록 깊은 기술자, 노동자들속에 깃들어가 그들의 정진력을 불어넣어주는 정치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짧은 기간에 수십대의 실비들을 자체로 설계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에서는 원료처리로부터 적의선가발부사에 의한 가공에 이르는 날알편취기생산공정의 효율성을 높인 수준에서 실현하였으며 날알의 영양학적가치를 최대한 보존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제품의 모양도 질적으로 다종다양하게 하였다.

새로운 날알편취기생산공정을 확립한 평양피산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제 몫의 과업을 더욱 높이고 질을 높일 목표밑에 계속진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전혜영

농업연구원 파수학연구소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과학나무의 열매

농업연구원 파수학연구소에서 우량종종의 과일나무들은 온 나라에 퍼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이 들은 많은 우량종종과 과일나무를 육성하여 나무모와 접가지들을 파수모목농장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실에 발을 붙여야 하는 사업을 감하게 내밀어야 한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실향선한 과일을 먹일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년과 당의 승호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이렇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우량종종의 과일나무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탐구의 길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파수분야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었다는 자심을 가지고 추운 지대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모든 지대들에서 우량종종과 과일나무를 재배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 품종에 대한 특성조사를 심화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과일나무 품종들의 우월성을 확증하였다.

이런데 파수모목농장에 보내준 품종이, 수리, 일과나무를

품종에는 물, 여름에는 물은 가을에 익는것도 있다. 특히 종전의 품종들보다 10일이상 앞당겨 8월 상순에 수확할수 있는 품종이, 살구나무종종도 있다.

가을에 익는 품종이나 나무모 품종은 종전의 품종들보다 당함량이 현저 높다. 올해 10월 상순에 수확한 품종은 앞당겨 3년만에 열매가 달리고 3년째부터 수확할수 있는 품종들이 있는가 하면 추위견디성이 강한 품종도 있다.

지금 많은 파수모목농장에서는 우량종종의 과일나무들의 사육을 높이기 위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과외소조운동을 짜고들어

성천강구역 영웅해방기술고급중학교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내는가 하는것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의 역할에 많이 달려있을수 있다.》

성천강구역 영웅해방기술고급중학교에서 과외소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재능을 훌륭히 꽃피워주고있다.

학교에는 수학, 화학 등 여러 과목의 과외소조가 있다. 해당한 과외소조는 학교적으로 자질이 높은 교원들이 지도하고있다.

이 학교의 과외소조운영방법이 주목된다.

학교에서는 소조원들을 선발할 때에 시험위주의 방법이라거나 아니라 과외담당교원들의 평가에 따라 매 학생들의 소조과 재능, 실력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에 기초하여 학급담당교원과 학생들의 담담을 통하여 그 학생의 취미, 희망 등도 구체적으로 료해한

다. 최종적으로 해당 과외소조를 담당할 교원과 과외장, 담임교원이 참가한 회의에서 학생들의 소조과 실력에 대한 질문을 내리고 해당한 과외소조에 참가시킨다.

과외소조에서는 교원들이 소조지도요강에 따라 배운 지식을 충고히 다져주는것과 함께 과학기술지식을 더 잘 습득할수 있게 하기 위한 폭넓고 깊이 있는 실험, 실습들을 진행한다.

품위소조운영엔 높고보더라도 교원은 우선 학식실력이 높고 열의가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기초하여 그 교원의 재능을 키워주는 데 힘을 넣고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수학적 초지식을 충고히 다져주는 한편 국제적인 올림픽경연에 출제되었던 수준 높은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문제를 능력이 높여주고있다.

이밖에도 교원은 교육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사업에 적극 비호함으로써 학생들의 창발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능

을 키워주고있다.

이 나날에 학생들의 프로그램 학습능력은 불모르게 높아져서 되고있고 지난해와 올해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과경연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화학, 수학, 컴퓨터소조의 학생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경연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경위하게 된 비결은 이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의 재능의 착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에 맞게 과외소조운영을 방법있게 진행한데 있다.

강령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학생들의 재능을 찾아내어 꽃피워주는데서 과외소조를 신설하였을 때부터는 문제가 제기되면 중요시한다. 우리는 과외소조운영사업을 보다 방방민중있게 짜고들어 학생들의 조구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인재로 여세계 키워내겠습니다.》

본사기자 주령봉

군안의 주민들이 정암아 부르는 우리 집

룡천군 인민병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인민병원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체로 꾸리고 리인민병원, 진료소들을 대환물적적보장사업을 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3월 초 룡천군인민병원 원장 리기춘동무는 뜻밖의 일에 부딪혔다.

무담 닳짓한 기간에 대중의 정진력을 바탕으로 종합수술을 면담하게 꾸려놓은 그는 며칠후 목욕탕건물을 다시금 발기하였다. 그런데 일부 종업원들속에서 일정한 시일이 지나서 건설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하였다.

종합수술실현을 눈앞에 두고있던 2월 중순에 병원에서는 모든 호실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전개하였다.

4월 중순까지 끝낼것을 목표로 한 보수공사는 그때 당시에 착공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복구함을 건설한다는것은 여간 아픈일이 아니었다.

원장은 병원의료일군들의 심

정을 리해되었다.

지난 2년동안 치료대상자와 자립향상계획을 넘나드르바른 속에서도 병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모든 정력을 바쳐온 그들이었다.

원장의 머릿속에는 지난날들의 추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병원에서는 2016년 한해동안만 해도 수천㎡에 달하는 외벽벽돌과 인민실병동에 대한 외벽벽돌을 깔고 구내조리실을 비롯하여 하였다.

삼부의 제는 뜻 무대위가 계속되던 그해 8월 단 3일동안에 수십명의 노력으로 천수백㎡ 되는 구내조리를 끝냈는데 군안의 인민들은 병원의 로동자의 전투력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환자들 집에 시와 같은 아늑한 기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호실의 내부장치를 장식하고 산뜻한 천정등을 달아놓는 한편 장가마다 꽃 화분까지 가져다놓아 사람들의 찬사를 보았다.

감나무, 대나무를 비롯한 수백그루의 나무들이 자라 아

침이던 입원환자들은 물론 출근기에 오본 군안의 주민들에게 귀다를 정서 안겨주는 구내집도 그리까지도 신철할 것 다 있고 환자들과 면담자들이 즐겁게 이야기할 것도 있는 휴식터 또한 모든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식사시간엔 자체의 비섯 생산기지에서 수확한 비섯과 수산물로 만든 여러가지 찬을 식탁에 올려놓을뿐아니라 생이 어려운 환자들을 따뜻이 돌보아주는 등으로 다할정도를 기울여 병원은 군안의 주민들속에서 우리 집으로 불려워졌다.

그러나 아직은 순간도 실눈을 떼지 않겠다고 여겨온 원장 몇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은 병원이 훌륭하게 꾸려내며 데하여 감동을 표시하였다.

그날 그는 조건은 비록 어렵지만 벼를 꺾어서라도 병원을 가까운 몇해안에 전국의 분포기단위로 만들 결심을 하였다.

초급당위원장 김철락동무와 일로도의 사업계획에 대해 토론한 그는 다음날 병원의 의료일군들을 불러냈다.

우리 단위의 사업에 자그마한 정서를 등우어주는 텔레비

전이며 목욕기, 선풍기를 비롯한 비좁은 원장 피곤을 무를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이 마련한것들이라고, 수년세월 이들을 환자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애로가 제거되면 당조직과 리의 계획에 제 집안사람들처럼 따듯이 해주겠다고.

얼마전 룡천군인민병원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의료봉사사업을 잘한것으로 하여 2중3대회형봉을 받을 수역반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병원을 떠나는 우리에게 이곳 일군은 몇달후에 다시 오면 종업원들과 환자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고 건설한 집집순우를 보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병원의 전망에 대해 토로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격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사회주의본체제의 강발전을 위해 온전케 장그리 바쳐가는 이런 의료일군들이 있어 이 땅에서는 세철의 흐름과 더불어 로동당민소리가 더 힘차게 울려 퍼지게 될것이라고.

본사기자 박경찬

본사기자 정성일

독자의 편지

저는 강동군 남강로동자구에서 살고있는 영애군인입니다. 인민들을 위하여 헌신적투쟁의 길을 이어가고있는 고마운 의료일군들의 소행을 전하고싶어 편지를 올렸습니다.

올해 삼복철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건강이 나빠진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구급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

다. 사지정형의과 과장 김건영 선생님을 비롯한 과의 의료일군들은 수시같이 걸치는 의사회의를 진행하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리셨습

니다. 치료 전 기간 의사선생님들이 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몸상태를 관찰하였으며 저의 몸안은 온갖 귀한 약들과 영양제들이 쉬임없이 흘러들었습

니다. 간호원동무들도 저의 건강을 간수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저 하나를 위해 그토록 지극

한 정과 사랑을 기울이는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동무들의 모습은 보면서도 이런 훌륭한 간호생명의 기사를 읽을수록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시울을 적신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저는 임원까지 한달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강동군 남강로동자구 김정순

로므니아시대리대사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국경절에 즈음하여 게오르게 아미비예에-니루페스쿠 주조 로므니아시대리대사가 28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외무성 부상 임원일동지, 대외문화원위원장 부위원장 서호원동지, 관계부서 일군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로므니아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

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위원장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로므니아대통령 플라조스 요한니스카의 건강을 축원하며, 주조 로므니아시대의 친선협력관계발전을 위하여 전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진천화강강성광산에서 진행된 기술혁신운동은 저마다의 재능을 발휘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인물들을 생산해 내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있다.

공무총합관리과 기술혁신사업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최첨단기술을 생산하는 데서 앞장서고있다. 이 나날에 생산자들은 올해에만도 수십건에 달하는 기술혁신물품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이동식업계의 기쁨을 불러주는 기술혁신물품이 계속적으로 생산되어 오고있다. 이 나날에 생산자들은 올해에만도 수십건에 달하는 기술혁신물품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민족음악발전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비낀 감명깊은 화폭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한 장면을 보고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막을 내린지도 2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살아 움직이는 화폭으로 남아있다.

어느 정, 어느 대륙이 뿐만하고 이채로운가, 끝없이 이어지는 화제속에 울려오르는 한결같은 목소리가 있다.

《천사들의 가야금수들이 바다를 이룬 가운데 나이가 서로 다른 세 남자가야금수가 나란히 앉아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모란봉》의 유정한 노래기락을 가야금으로 동지당당 울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남자야금수가 마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한가득처럼 보인다고 웃음속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아름다운 민족적 정서를 더해준 세 가야금수, 그들은 누구들이며 어떻게 되어 공화국의 70년 역사를 노래하는 영광의 무대에 함께 올랐는가.

오랜 연주가의 추억-천리마시대 가야금소리

특색있는 가야금대형상의 첫 선을 볼 땐 사람은 오랜 연주자인 한철동무이다.

일흔살에 가까운 몸으로 깊은 이슬과 함께 화려한 무대에 나서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수령님 생각이 났습니다.》

한철동무는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이듬해에 태어났다. 열살

때부터는 공원이 끝난 후 그들을 부르시어 공원을 제일 잘했다고 높이 치하하셨다. 민족예술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시려는 수령님의 높은 뜻은 한 가정의 생활에도 해미처럼 흘러들어 한철동무는 가야금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민족무용의와 서양음악에 대한 맹목적인 우상화로 찾아들었던 민중악기의 우아하고 구성적인 선율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왔다.

대학에서 그들 가르친 교원은 우리 나라 가야금연주계의 원위자의 한 사람이다.

한철동무는 그에게서 연주술만 배운것이 아니라 우리 수령님께서 일찍이 민족음악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잘 알게 되었다. 공연무대에 가야금종류가 나올 때마다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나라의 때 가짐들이서 가야금소리가 울려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신 어머니수령님, 민족음악을 교민음악이라고 하고 서양음악을 현대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하시며 그 교원을 친히 바로잡아주시

었다. 김현규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교원인 그의 안내는 어머니수령님앞에서 가야금을 라는 영향을 지닌 어제 남의 처녀가야금연주자이다. 그 둘부부는 아들과 딸, 손자에게도 가야금을 배워주었다.

일생 가야금을 사랑하고 민족음악발전을 위한 사업에 온념을 바쳐온 한철동무들 당에서는 공화국의 70년 역사를 노래하는 영광의 무대에 내세워주었다. 그 한사람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천리마의 세한 커덕임과 함께 높이 울려나온 그날의 가야금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는 가야금연주자의 생활을 마친 후 작곡가로, 극민족예술단 단장, 문화성 부장으로 사임하였으나 가야금은 여전히 그의 생활의 떼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다.

어머님당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두번째 주인공, 41살의 경남철동무는 여러 신년경축무대를과 예술공연에서 가야금종류로 우리 인민과 친숙하게 지냈던 가야금연주자이다.

김현규명칭 음악종합대학 민족악기학부 교원인 그가 무대에 서 뜨거워 뜨거워, 헛기러기와 봉헌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민중음악을 다룬 작품들을 들려준 때면 관중들은 황송경과 심미경에 잠긴다.

5살때부터 지금까지 30여년을 가야금과 함께 남다른 인생길을 걸어온 그의 가슴속에 는 민족음악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는 우리 당의 영도아래 위대성이 뜨겁게 간직되어 있다.

경남철동무도 한때 자신의 장래를 두고 유려한적이 있었다. 가야금소리는 능숙이가 사람의 말소리보다는 비속한것으로 하여 친근감을 자아내지만 근대 신음악과 융합이 작아 현대적이감에 맞는 새 노래를 형성하기 힘든 제한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적성은 편한것이

아니었다. 김현규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교원인 그의 안내는 어머니수령님앞에서 가야금을 라는 영향을 지닌 어제 남의 처녀가야금연주자이다. 그 둘부부는 아들과 딸, 손자에게도 가야금을 배워주었다.

일생 가야금을 사랑하고 민족음악발전을 위한 사업에 온념을 바쳐온 한철동무들 당에서는 공화국의 70년 역사를 노래하는 영광의 무대에 내세워주었다. 그 한사람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천리마의 세한 커덕임과 함께 높이 울려나온 그날의 가야금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는 가야금연주자의 생활을 마친 후 작곡가로, 극민족예술단 단장, 문화성 부장으로 사임하였으나 가야금은 여전히 그의 생활의 떼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다.

어머님당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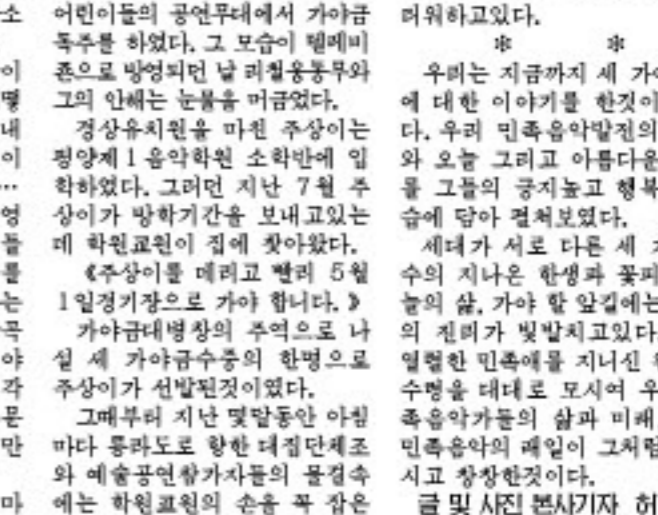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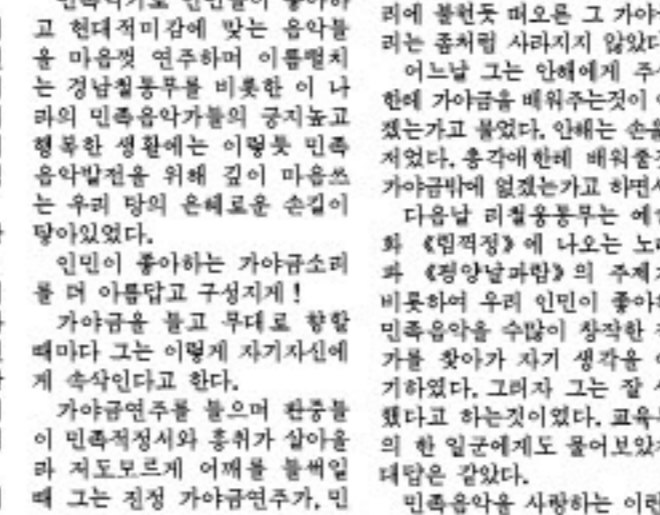
두번째 주인공, 41살의 경남철동무는 여러 신년경축무대를과 예술공연에서 가야금종류로 우리 인민과 친숙하게 지냈던 가야금연주자이다.

김현규명칭 음악종합대학 민족악기학부 교원인 그가 무대에 서 뜨거워 뜨거워, 헛기러기와 봉헌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민중음악을 다룬 작품들을 들려준 때면 관중들은 황송경과 심미경에 잠긴다.

5살때부터 지금까지 30여년을 가야금과 함께 남다른 인생길을 걸어온 그의 가슴속에 는 민족음악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는 우리 당의 영도아래 위대성이 뜨겁게 간직되어 있다.

경남철동무도 한때 자신의 장래를 두고 유려한적이 있었다. 가야금소리는 능숙이가 사람의 말소리보다는 비속한것으로 하여 친근감을 자아내지만 근대 신음악과 융합이 작아 현대적이감에 맞는 새 노래를 형성하기 힘든 제한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적성은 편한것이



조선 옷 전 이 제 일

조선 옷 전문가들과 나누는 이야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적 전통을 높게 계승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얼마전 우리는 녀성들의 생활속에 이룩한 고집과 정답게 자리잡고있는 조선옷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해 조선옷전문가들을 만나보았다. 민족옷을 발전시키자면 우선 그 특징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방공업성 부원 심준환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조선옷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 형태나 색, 무늬에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아한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옷이 다른 나라 옷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비례로 이루어진것, 옷이 무뎠음을 선물로 이루어진것, 볼품없음을 가지고있는것이 조선옷의 형태적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선옷에서 저고리와 치마의 비례치가 큰데도 불안한 느낌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독특한 형태적특징을 나타내는것은 짧은 저고리의 몸체와 편철된 적당한 폭의 두 소매나 가슴중심에 드러워진 두가닥의 고풍이 인정한 고풍을 보장하기때문이다. 평양미술종합대학 공예예술

가 교수 박사 미유미동무는 저고리의 고풍과 깃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외국사람들속에서 동방의 신비라고 불리우는 조선치마저고리의 고풍은 옷의 아름다움을 돋구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로부터 고상하고 경의감이 강하며 단정함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옷고름도 되는대로 매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비모양의 매듭이 되게 매는것을 관례로 삼았다. 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은 저고리깃에 흰 실로 동정을 만들어 이렇게 관습으로 여겼다. 이런 형태적특징들을 살리면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조선옷을 잘 만드는것은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평성시범의 봉사관비서 김준선동무의 책 행인 김준선동무에게서 들을수 있었다. 김준선동무는 저고리깃작에서 기본은 색과 무늬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중은 예로부터 친한 비방을 놓을것을 좋아하지 않았

수한 정가를 달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민족의 우수성이 어찌있고 독특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깃들여있어 우리 인민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입는 조선옷.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조선 민족의 한성원인을 맺듯이 자부할수 있게 하고 만민간의 자유한 역사와 친밀한 문화와 가진 슬기롭고 존엄높은 민족임을 가슴뿌듯이 새겨안을수 있게 하는 우리의 조선옷이야말로 대를 이어 빛내어가야 할 민족의 귀중한 재부인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는 함성이 들려왔다. 《어머 작업의 원형에 제 1작업인 제 3작업인 사이에 세로로 경기가 벌어져서 같습니다.》 동행한 신임동무장 일군이 하는 말이다. 이어 그는 서점에서 농성적으로 1, 2등을 다루는 작업인 줄이라고 자랑하듯 말했다. 일군이 원형소리에 이끌려 우리는 입을 열었다. 《어서 배지기로 넘겨주세요.》

《호미집을 하라니까.》 ...

모든 사람들이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제 1작업의 농성원이 보기 좋게 상대편을 넘어뜨렸다. 그러자 온 돌판이 떠나갈듯 북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우리의 마음은 길로 흥그러워졌다.

제들은 물론 그와 더불어 활을 활을 모던한 신임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며 일군은 우리를 농장의 연쇄소리로 이끌었다. 연쇄소리에 이르니 이곳 농장원들이 전국농업근로자민족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씩씩, 그네뛰기, 널뛰기 종목에서

《조선예술의 진도양양한 비례를 보았다.》

이것은 올해 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모스크바의 명수들, 오늘날과 세기》 공연무대에 출연하여 로씨야에게의 무대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우리 나라의 최장수 학생을 축하하며 로씨야의 예술전문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떠난 경연의 목소리이다.

세 명 국악을 손재있어 연주하며 사람들

우리 민족옷의 우수한 전통을 살려나가기 위해 지혜를 합쳐간다. -단선시범의봉사관비서 조선옷전문가- 본사기자 찍음

《조선예술의 진도양양한 비례를 보았다.》

이것은 올해 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모스크바의 명수들, 오늘날과 세기》 공연무대에 출연하여 로씨야에게의 무대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우리 나라의 최장수 학생을 축하하며 로씨야의 예술전문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떠난 경연의 목소리이다.

세 명 국악을 손재있어 연주하며 사람들

《조선예술의 진도양양한 비례를 보았다.》

이것은 올해 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모스크바의 명수들, 오늘날과 세기》 공연무대에 출연하여 로씨야에게의 무대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우리 나라의 최장수 학생을 축하하며 로씨야의 예술전문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떠난 경연의 목소리이다.

세 명 국악을 손재있어 연주하며 사람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조선예술의 진도양양한 비례를 보았다.》

이것은 올해 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모스크바의 명수들, 오늘날과 세기》 공연무대에 출연하여 로씨야에게의 무대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우리 나라의 최장수 학생을 축하하며 로씨야의 예술전문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떠난 경연의 목소리이다.

세 명 국악을 손재있어 연주하며 사람들

《조선예술의 진도양양한 비례를 보았다.》

이것은 올해 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모스크바의 명수들, 오늘날과 세기》 공연무대에 출연하여 로씨야에게의 무대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우리 나라의 최장수 학생을 축하하며 로씨야의 예술전문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떠난 경연의 목소리이다.

세 명 국악을 손재있어 연주하며 사람들

《조선예술의 진도양양한 비례를 보았다.》

이것은 올해 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모스크바의 명수들, 오늘날과 세기》 공연무대에 출연하여 로씨야에게의 무대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우리 나라의 최장수 학생을 축하하며 로씨야의 예술전문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떠난 경연의 목소리이다.

세 명 국악을 손재있어 연주하며 사람들

《조선예술의 진도양양한 비례를 보았다.》

이것은 올해 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모스크바의 명수들, 오늘날과 세기》 공연무대에 출연하여 로씨야에게의 무대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우리 나라의 최장수 학생을 축하하며 로씨야의 예술전문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떠난 경연의 목소리이다.

세 명 국악을 손재있어 연주하며 사람들

반제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간다. -평양연경공장에서- 본사기자 비룡 찍음

